

전남광주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 창업 거점 ‘주목’

기관 석달만 48팀 참여...가동률 100%·추석 판매 성과
12월 11일까지 ‘3기 창업팀’ 30팀 모집...내년 3월 운영

지난 7월 문을 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가 인기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려는 농업인과 예비창업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 3개월여 만에 1기 21팀 37명, 2기 27팀 49명 등 총 48팀 86명이 참여했으며, 센터 가동률은 100%에 달한다.

도라지정과, 식혜 등을 만든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만든 가공제품으로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약 12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2기부터는 전남지역 창업희망자들까지 참여가 확대되면서 통합에 따른 광주·전남 간 창업 교류·협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들이 꼽는 가장 큰 변화는 ‘생산’에 머물던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갯잎페스토와 오이스프레드를 만드는 오숙자·배수진씨는 “농부는 판매만으로 살아남기 힘들어 가공식품으로 눈을 돌렸다”며 “지금은 버섯을 이용한 페스토나 타르트를 만드는 등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채소샐러드 사업을 준비 중인 임태정씨는 “초과 생산된 채소를 어떻게 판매할지 고민하다가 샐러드 사업을 생각하게 됐다”며 “센터에서 시료 테스트와 시제품 제작을 거쳐 판매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도라지정과와 조청을 만드는 나혜숙씨는 “부모님을 위해 조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반응이 좋아 판매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처럼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창업계획이 되도록 식품위생과 영업신고부터 제품개발, 실제 제조까지 창업의 첫 단계부터 함께하고 있다.

생화차와 오미자청 등을 만드는 김양

지씨는 “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가공센터에서 실제 제품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좋다”며 “가공에서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패키지 디자인도 중요하네. 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피드백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 시장성 검증 등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해 상품화하는 데 특화된 공공형 식품제조 공유주방이다. 일반적인 배달음식·외식업 중심의 공유주방과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제조, 포장,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용자는 별도의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공유주방 이용계약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신만의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다.

센터에는 일반조리실과 베이커리실을 비롯해 식품건조기, 회전식 국술, 각종 오븐과 믹서 등 전문 가공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포장실, 촬영스튜디오, 교육장 등 제품의 상품화와 판매 준비에 필요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센터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제3기 공유주방 창업팀’ 30팀을 모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자신만의 식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상품화·판매를 희망하

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창업팀은 내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팀당 기본 50회의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자격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이용할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교육인 ‘공유주방 첫걸음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11월 13일과 12월 11일 진행된다.

신청은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didh0428@korea.kr)으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12월 11일 오후 4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업지원과(062-613-5431)로 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본부세관은 21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6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제일, 완도맘영어조합법인 등 2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광주세관, 수출입 안전 우수업체 공인...관세 혜택

㈜제일·완도맘영어조합 등 신규 2곳 인증

광주본부세관은 21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6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제일, 완도맘영어조합법인 등 2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및 안

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다.

광주특별시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제일은 자동차 기술 및 자동차 물류 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며,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은 전복 등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AEO 인증으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 검사 비용 축소 및 수입신고시 담보제

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 (AM)을 통해 사후관리와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높아지는 해외 통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AEO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케이블로 지하고속도로 화재 실시간 감시

광기술원, 온도 계속 시제품... 전기차 배터리 실화재 검증

한국광기술원은 광케이블 기반 분포형 화재감지 시스템의 계속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팩 실화재 실증테스트를 통해 화재 환경에서의 온도 계속 성능과 방재설비 연동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하나다. 한국광기술원은 2024년 4월부터 지하고속도로 재난·사고 예방 기술 가운데 화재감지 분야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한 시제품은 최대 10km 구간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 과체 중료 시점인 2028년까지 감지거리를 15km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길이 20~30km에 이르는 초장대 지하고속도로도 양방향에서 각각 15km씩 측정하면 전 구간을 감시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지하고속도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기존 점형 감지기는 설치 지점 사이에 감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에도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광케이블에 강한 빛을 보내고 되돌아오는 라만 산란광을 분석해 온도를 측정하는 분포형 온도계측 (DTS) 기술을 적용했다. 광케이블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해 별도의 전원이나 전기 배선이 필요하지 않으며, 화재나 침수 상황에서 온도도 측정할 수 있다. 온도는 0.5m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측정한 온도 정보를 구역별로 분류해 상용 화재수신기에 전달하는 기능도 갖췄다. 기존 터널 소방·방재 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연동할 수 있어 현장 적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제품은 지난 6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처음



공개됐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7월 경기 여주방재시험연구원에서 전기차 배터리팩을 실제로 발화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 배터리팩이 전소되는 조건과 소화약제 투입이 지연되는 조건에서 약 40m 길이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개발한 시제품을 상용 화재수신기와 연결해 성능을 확인했다.

시험에서는 화재 발생부터 확산까지의 온도 변화를 0.5m 간격으로 연속 측정해 발화 위치와 확산 경로를 추적했다. 화재수신기 정보 연동도 확인해 실제 방재설비와의 호환성을 검증했다. 연구원은 다채널 광센서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해 특허 3건을 출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경제자청, 미래모빌리티 투자 유치 나서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홍보관 운영...지역 기업 10곳 참여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지역 산업 기반을 알리고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 나선다.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미래차 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DIFA 2026)’에 참가해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엑스포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다루는 전문 전시회다.

전남광주경제자청은 홍보관에서 전남광

주경제자유구역의 3대 핵심지구인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의 산업 기반시설과 투자 여건을 소개한다.

지역 모빌리티 기업 10곳의 주력 제품과 신기술도 전시해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홍보관 내 투자상담 부스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여건과 산업 기반시설을 안내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